

미·러 정상, 121분간 '네 탓' 회담

바이든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시 제재" 푸틴 "나도 동진 정책 중단하라" 경고 주고받아... "만족 못한 회담"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이 7일(현지시간) 121분간 화상회담을 열었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현안에 이견만 확인했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인근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시 강력한 경제·비경제적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 떠넘겼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회담의 가장 핵심

적 의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군사적으로 침공하면 미국과 유럽 동맹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유사시 강경한 경제 제재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가동 중단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 서방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아 발트해 동맹이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력'이나 '배치'를 요구한다면 미국은 대응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보였으며,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비난은 없었지만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정상과 통화하고 결과를 공유한 뒤 철저한 공조를 다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나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려는 위협한 시도를 하고,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인접 국가로 타격을 공격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뢰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명시된 보장을 받는 데 큰 관심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요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타스통신에 "정상 회담의 결과를 논평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양국간 문제가 너무 많이 누적된 터라 이를 풀려면 수개월 또는 1년도 더 걸릴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정상회담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아웅산 수치 징역형 선고' 항의 시위 7일(현지시간)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시민들이 자국 군사 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 군정은 전날 수치 고문에게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4년 형을 선고했다가 곧바로 2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미 동맹국,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 가세

호주·뉴질랜드 공식화... 일·영 검토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천명하자 미 동맹국이 속속 불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올림픽에 정부 인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지난 6일(현지시간)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뉴질랜드가 7일, 호주가

8일 각각 뒤를 따랐다. 일본과 영국에서도 보이콧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는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호주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일 정도로 양국은 경

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였으나, 호주가 미국 주도 아래 중국 기업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고,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관계가 틀어졌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되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꾸러진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백악관은 배경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들었다. 서방 국가로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BBC "오징어게임은 TV 혁명의 시작"

비영어 콘텐츠 성공 증명 자막·리메이크 관행 사라질 것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성공이 비영어 콘텐츠 비중이 작았던 영어권 TV 문화를 뒤바꾸는 '혁명의 조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오징어 게임'은 TV 혁명의 조짐일까'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통해 오징어 게임 신드롬의 의미를 되짚었다.

BBC는 오징어 게임 돌풍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제작된 비영어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쓴 전례 없는 성공이라고 평했다. 특히 자막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영국에서조차 수천만 시청자가 자막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설명했다.

BBC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신드롬이 영어권 TV 문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돼 비영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문화 평론가 데이비드 철크는 "(어릴 때)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즐기려면 불법 사이트나 DVD

판매점에 가야 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통해 영어권 시청자가 자막에 대한 거부감이 업계 우려보다 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역시 비영어 콘텐츠에는 희소식이다.

기존까지 영어권 제작사나 배급사가 시청자들이 자막을 싫어한다고 판단해 비영어 콘텐츠를 선호하지 않았다.

나아가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세계인이 한국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어 한국에서 또 다른 성공적 비영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BBC는 지난 10월 말 영국 일간 가디언이 낸 '오징어 게임에 푹 빠졌습니까? 다음에 볼 최고의 한국 드라마 10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해당 매체에서 당시 많이 본 기사 10위 안에 들었는 사실과 함께, 넷플릭스 시리즈 지육이 연이은 한국 드라마 성공기를 써 내려간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언어·국가별로 분절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합된 대중문화를 즐기는 최근 추세가 기존 영어권 TV 문화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소년 '귀신의 집'서 심장마비 사망

말레이시아 리조트 놀이시설에 있는 '귀신의 집'에 들어간 16세 소년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코스모 등 말레이시아 매체에 따르면 이달 1일 파항주 번통(Bentong) 리조트에 친구 가족과 함께 여행 온 16세 소년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페이스북에 공개된 동영상 보면 눈을 감고 쓰러져 있는 소년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숨을 쉬어 보라고 혼들지만, 소년은 축 늘어져 전혀 움직임이 없다. 소년은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고 부검 결과 심장에서 전공이 발견됐다.

목격자들은 소년이 '귀신'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돌연사로 사건을 종결짓고, 시신을 가족이 기다리는 말라카로 이송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일부 매체는 '타코츠보 심근증'(Takotsubo cardiomyopathy)이 소년의 사망 원인일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병은 '상심증후군'(broken heart syndrome)으로도 불리는데, 극심한 슬픔, 분노, 공포 같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심장의 좌심실이 부풀어 올라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근경색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반대한 결혼했다"... 인도 남동생이 19세 임신부 누나 살해

인도의 한 10대가 가족이 반대한 결혼을 했다며 19세 임신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BBC뉴스와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아우랑가바드에 사는 18세 소년 산케트 산자이 모테는 지난 5일 친누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모테가 어머니(38)와 함께 누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발생했다. 모테는 집안에서 흥기를 휘둘러 누나를 참수했고 어머니도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는 범행 후 참수한 머

리를 들고 나와 썰카까지 찍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 자수했고 모테는 18세가 안 된다는 변호사 주장에 따라 청소년 교정 시설로 보내졌다. 어머니는 구급했다. 이들 모자가 이런 범행을 한 이유는 피해 여성이 가족의 동의 없이 결혼했다는 점 때문으로 알려졌다.

살해된 여성은 지난 6월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 연인과 도주했다가 결혼했다. 여성의 가족은 남성 쪽 집안이 더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